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npnews.org
영어판 english.gnpnews.org
일본어판 japan.gnpnews.org
중어판 china.gnpnews.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3. 7. 16 ~ 2023. 8. 5 제285호

일본 성도들 “한국은 차별금지 법 막아야 해”... 눈물로 호소

최근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 통과 위험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일본은 지난달 13일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교도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이 성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차별을 금

지하는 ‘LGBT이해증진법안’에 찬성하면서 가결돼 참의원(상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메시지를 전해온 일본의 한 기독교인 여성은 “일본은 이 법을 통해 G7에 소속돼 있는 나라들의 LGBT 동성애의 큰 흐름을 타게 됐다.”며 “한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법이 생기는 것을 막고 있다고 들었다. 일본에서는 기독교인 수가 적기 때문에 이 법을 막을 수 없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막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다. 한국에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또 다른 여성은 “법이 통과됐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이 통과된 것조차 알지 못했다.”며 “일본의 국회의원 중에서 기독교인과 목사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통과됐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기도로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5월에 열린 2023년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성소수자 차별 반대와 보편적 인권 옹호에 대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일본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압박한 바 있다. 지난 4월 램 이 매뉴얼 주일 미국대사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도쿄에 있는 제일 외국 공관 15곳은 LGBTIQ+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차별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GNPNEWS]



▲ 일본 청년들. © 복음기도신문



조윤환 대표 (사단법인 더울펜)

“고아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6살의 어린 조윤환은 외할머니댁에 다녀오는 길에 서울 강남고속터미널에서 버려졌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아버지를 모셔온다던 엄마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2018년에 극적으로 부모님을 찾았다. 33년간 고아의 인생이 끝나던 날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고아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다. 외로운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를 만나던 그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조대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몸이라며 취재진을 반기며 지나온 삶을 나눴다.

● 4면에 계속



포토뉴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알바니아 교회!



▲ 알바니아의 전통 결혼식. 제공: WMM

형형색색

화려하게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수 놓인 알바니아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앞둔 신부와 들러리들이다. 붉은 의상 사이에 선 흰색 드레스의 신부는 오늘날 결혼식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랑을 맞이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또 다른 신부 알바니아는 로마서 15장에 나오는 ‘일루리곤’ 지역으로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이 전파됐다. 그러나 1478년, 오

스만 제국에 정복당해 450년 동안 이슬람화됐고, 여러 외세의 침략을 받다가 1944년에 공산주의 정권의 수립으로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고 박해를 받았다. 그러다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고 1990년대 선교사들이 유입되면서 복음이 전파됐다. 현재 300명 정도의 해외 선교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훈련과 기독 자원 개발, 총체적 사역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가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이양되고 있다.

알바니아 교회는 이슬람의 물결과 공산화의 위협에서도 믿음을 지켜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어린양의 신부의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날, 오늘의 이 결혼식과 같이 환한 얼굴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으리.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요한 계시록 21:2) [GNPNEWS]

복음의 소리 316전화

복음이 뭔지 궁금하신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1670-3160

운영시간 : 10시-22시
상담시간 : 40분

장난 전화는 삼가주세요

“선교완성을 위한 전략은 순종의 전문가를 세우는 일”

김용의 선교사, 헤브론원형학교 제5회 책임교사 포럼에서 밝혀

“아무리 멋진 전략을 세워도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탁상공론이다. 선교완성을 위한 선교전략의 핵심 전략은 사람, 즉 순종의 전문가를 세우는 것이다.”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헤브론원형학교가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학부모와 교육선교사들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제5회 책임교사 컨퍼런스에서 이 학교 이사장 김용의 선교사는 주제 강의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선교전략으로써 순종의 전문가’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김 선교사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과 그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순종의 전문가를 세우셨다. 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참여했다.”며 선교전략으로써 순종의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방개척선교단체인 지오(GO) 대표 주수가 선교사는 “그동안 철옹성 같은 이슬람 지역에서 수많은 개종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는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이 친히 이끄신 결과”라며 “따라서 지금 선교지는 자신의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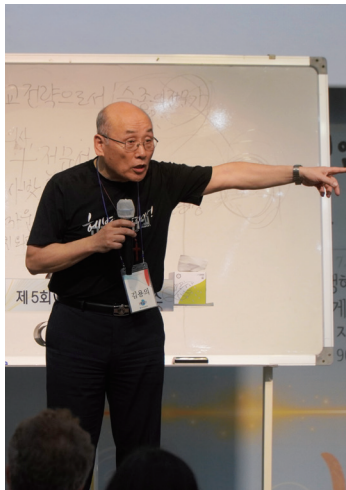
둘째 날 ‘세계 선교 동향과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의 준비와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한 주 선교사는 “과거 서구 국가에서 비서구 국가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면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이뤄지는 세계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분량만큼의 순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번 컨퍼런스의 시작과 함께 이 학교 졸업생 오택수(2기), 김채운(3기), 윤사무엘(4기), 신현균(5기) 선교사 등은 졸업 직후 다녀온 해외 선교지에서 2년간의 단기 선교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 하심과 자신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며 자신들이 경험한 순종의 삶을 전하고, 책임교사인 재학생 부모님들의 질문에 시종 진지하게 답했다.

2017년 이 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헤브론원형학교에서 교사로 있는 김채운 선교사는 “인도 찬디가르에 파송되어 순종의 시간을 보내며 순종의 가치를 발견했다.”며 “돌이켜볼 때 2년간의 용감한 정예병 기간에는 복음의 영광과 기쁨을 충분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순종의 시간이 있었기에 다음 걸음을 결정할 때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결론을 갖고 종신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3년 다음세대 선교사 양성



▲ 김용의 선교사. 제공: 헤브론원형학교

을 목표로 개교한 헤브론원형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12학년까지 초중고등 과정 동안 성경을 교과서로 한 교육과정으로 교육하고, 학교 졸업생들은 ‘용감한 정예병’이라는 이름으로 2년간 해외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다.

또한 책임교사란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의 교육선교사와 함께 가정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를 가리킨다. 이들은 그동안 학교 교사들과 함께 지난 4차례에 걸친 컨퍼런스를 통해 다음세대의 교육 목적, 방법 등을 정리한 ‘헤브론원형학교 교육백서’를 공동집필하기도 했다. [GNPNEWS]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결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네팔 대법원, ‘성소수자 커플’ 결혼 등록 허용 명령

네팔이 성소수자(LGBTQ) 결혼 합법화를 위해 ‘결혼 평등법’ 개정을 앞두고, 네팔 대법원이 지난달 28일 법이 개정될 때까지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 등록을 일시적 허용하라고 정부에 명령했다고 외신을 인용해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네팔에서는 2007년, 성소수자 권리를 근본적 인권으로 인정한 바 있다.

육신의 쾌락을 좇아 동성혼을 옳다 하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네팔의 영혼들이 심판주 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파키스탄 무슬림 의원, “신성모독 용의자에 반테러법 적용해야”

파키스탄 무슬림 국회의원들이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용의자에게 반테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최근 전했다. 파키스탄 내무장관과 경제장관, 이슬람 극단주의 정당 지도자들은 지난달 17일 테러 방지법 관련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파키스탄 형법 295-C조에 따른 신성모독 혐의로 용의자가 기소되면 반테러법에 따른 처벌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성모독 용의자에 대해 신속한 재판 및 항소 절차를 요구한다.

주님, 신성모독법을 이용해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파키스탄을 엄히 꾸짖어주소서. 하나님의 질투로 분명히 일어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총회 군선교국, 군종사관 2명 임직

청년선교의 보루 군 선교 현장을 섬기는 군종사관 2명의 목회자가 세워졌다고 지난 3일 아이굿뉴스가 전했다. 총회 군선교국은 지난 달 23일 육군종합행정학교 남성대교회에서 한국군종목사단 주관의 81기 군종사관 임관 감사예배를 드렸다. 군종사관 81기 수료생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특송으로 영훈구원의 최전방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주님, 군 선교를 위해 헌신한 주님의 종들이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군대에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병사들이 우리 삶의 주인이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GNPNEWS]

중국, 7월부터 선교활동.촬영.지도검색도 간첩죄로 처벌 가능

중국에 체류중이거나 일시 여행 중인 외국인이 선교활동을 하거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지형지물을 촬영하거나 현지 지도나 각종 통계자료를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주중 한국대사관이 7월 1일부터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지 교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주의사항을 공지했다.

대사관은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 데이터 등에 대한 열람, 보관, 전달 행위를 간첩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나 사진, 통계자료 등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에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가 금지하는 종교 활동 등도 간첩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중국은 간첩 행위의 정의 및 대상을 확대해 국가안보 관련 정보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하고 국가기관·기밀 및 정보기관시설에 대한 촬영, 사이버 공격과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로 간주된다. 또한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은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벌할 수 있으며, 간첩 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 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하고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 협조 의무를 명령할 수 있다. 또 국가안보 위협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 10년 이내 입국 금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한국대사관은 우리나라와 제도, 개념이 다른 중국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주중 한국 공관으로 연락하고 체포 또는 연행 시 반드시 영사접견을 적극 요청하라고 전했다.

대사관은 교민들에게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 연락처 정보 등을 미리 알려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베이징 등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전화(86-10-8531-0700)로 전화하거나 이메일(chinaconsul@mofa.go.kr)로 연락해

[GN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3년 7월 17일 ~ 2023년 8월 5일

7월 17일 ~ 7월 22일 ▶경남 통영 / 두미교회(이**)010-4734-8567, ▶부산 사하 / 영원간병회(김**)010-7227-2560, 7.17(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7.18(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7.19(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19~21(10~17시) ▶강원 속초 / 동명교회(최**)010-8378-1273, 7.20(0~24시) ▶경기 파주 / 갈릴리교회(이**)010-3869-3417, 7.21(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그 외 10교회 진행중.

7월 24일 ~ 7월 29일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강**)010-7364-9982, 7.24~26(10~16시) ▶서울 마포 / 금강아산병원(이**)010-5248-4147, 7.24~28(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7.25(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7.26(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7.27(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7.27(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그 외 8교회 진행중.

7월 31일 ~ 8월 5일 7.31~8.5(11~17시) ▶경기 군포 / 예수생명교회(권**)010-2735-4869, 8.1(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8.1,3~5(20~22시) ▶전남 신안 / 암태중부교회(강**)010-5186-0091, 8.2(11~15시) ▶경기 부천 / 어울림교회(박**)010-2664-6936, 8.3(20~22시) ▶충남 서산 / 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8.4(10~17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010-4128-0448, 8.4(12시)~5(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5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 트랜스휴머니즘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인 트랜스휴머니즘이 결국 인류를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고 밝힌 마크 레그의 데니스포럼의 기고문을 번역, 요약 소개한다. <편집자>

최근 독일의 한 루터 교회에서 디지털 아바타를 사용하는 인공지능(AI) 목사가 40분 동안 예배를 진행했다. 챗지피티(Chat GPT)와 같은 대규모 대화형 인공지능은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속세를 안겨다줄 미래 사회의 모습은 이미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애플(Apple)은 최근 실제 주변 환경에 디지털 이미지를 겹쳐서 볼 수 있는 최초의 증강 현실 헤드셋인 '비전 프로'를 출시했다. 또 유전공학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형질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된다. 키가 큰 양손잡이 농구선수를 원하는가? 문제없다. 이 무시무시한 가능성을 '디자이너 아기'라고 한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이미 아기를 디자인할 수도 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등장

과학기술로 인간의 능력을 개선하려는 트랜스휴머니즘이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운명에 관한 이야기와 어떻게 부합할까?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트랜스휴머니즘을 “유전공학, 냉동공학, 인공지능, 나노기술과 같은 최신 및 신기술 적용을 통해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철학적, 과학적 운동”으로 정의한다. 트랜스휴머니즘과 트랜스젠더주의는 동일한 전제를 바탕으로 하지만 또 다른 개념이다. 접두사 트랜스(trans)는 건너편 또는 그 너머를 의미한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철학적 신념으로, 신이나 다른 영적인 도움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간의 타고난 능력을 뛰어넘는 향상을 통해 인간이라는 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포스트휴먼’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 트랜스휴먼(조인류)은 잠재력이 향상된 중간 단계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은 잠재력 향상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인류로 ‘넘어가는’ 운동이며, 계몽주의, 자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정신을 계승하게 된다. 세속적이고 기술적으로 진보된 사회일수록 트랜스휴머니즘이 기본 세계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트랜스휴머니즘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이 인간을 덜 인간답게 만들수록 우리

는 현실에서 더 멀어지고, 컴퓨터에 더 의존하고, IT 기업과 정부에 더 의존하게 되며, 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될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많다. 일례로 정부 기관이 유해하다고 판단한 글을 읽지 못하도록 증강 현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찰이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누가 범죄를 저지르지 예측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할 수 있다.

인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트랜스휴머니즘을 개발해야 할까?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축적된 기술 발전으로 일종의 자생적 진화를 통한 구원을 추구한다. 어떤 의미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은 휴대폰, 인터넷, 소셜 미디어, 유전공학,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 발전의 지속적인 성장을 상상하는 것일 뿐이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트랜스휴머니즘은 일종의 신앙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은 과학기술이 인간을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지자들은 믿는다. 트랜스휴머니즘이 휴머니즘에서 출발하는 이유는 인류가 지금과 같은 유토피아를 달성하기에는 너무 결함이 많으므로 기술 개발을 통해 유토피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트랜스휴머니즘의 주장이 가져올 수 있는 임박한 문제들, 즉 무분별한 의학적, 과학적 ‘성장’이 가져올 수 있는 득보다는 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일종의 세속 종교인 트랜스휴머니즘은 세 가지 주요 장애물을 직면하고 있다.

첫째, 트랜스휴머니즘은 엄청난 현실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이자 옥스퍼드 교수인 닉 보스트롬 박사는 “트랜스휴머니즘은 기술적 낙관주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며 “기술이 막대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예를 들어 암을 제거하도록 슈퍼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한다고 가정해 보자. 인공지능은 살아있는 모든 인간과 동물을 죽이는 것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간은 원래 컴퓨터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지시를 엄격하게 따름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트랜스휴머니즘 기술이 개발되더라도 그 활용에 대한 문제는 매우 불확실하고 최악의 경우 끔찍할 정도로 위험할 수 있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은 도덕적 가치를 확립할 수 없다. 기술주의 사회는 가치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기술을 추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무엇이 희생될 수 있다. 트랜스휴머니스트들은 트랜스

휴먼(조인류) 운동이 정부가 뇌 임플란트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는 디스토피아적 상황은 피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셋째, 트랜스휴머니즘이 우리의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두려움, 교만, 부도덕, 분노, 탄압, 불법 등 선한 것을 외면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고치기 힘든 장벽을 만나게 된다. 트랜스휴머니즘의 비전에 따르면, 인간은 기껏해야 수천 년 동안 매우 똑똑하고 극도의 감각적 자극을 받으면서도 분별력, 인격, 선행, 정의, 도덕성, 심지어 행복까지 결여된 채 살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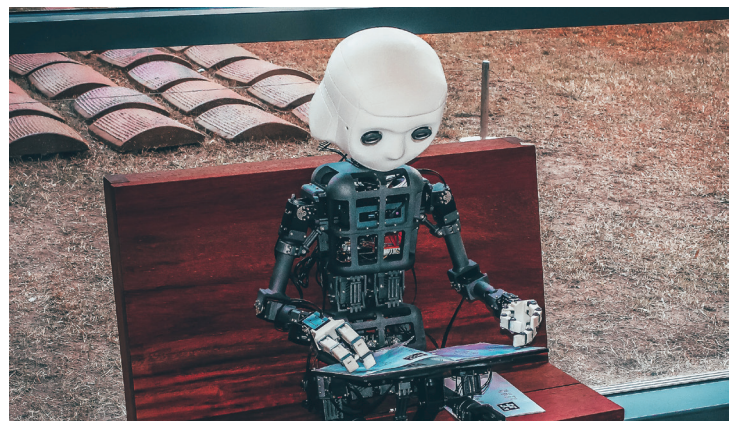
성경이 말하는 트랜스휴머니즘

트랜스휴머니즘은 우리의 삶을 연장하고 풍요롭게 하길 원하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결국 죽음과 공허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와 제국에 대한 성경의 분석과 일치한다. 인간이 만든 시스템은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타락한다. 우리는 사회를 평화와 정의와 관용으로 이끌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리스도 외에 어떤 정치 체제나 이데올로기도 희망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로마 황제 숭배와 로마 통치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팍스 로마나였다. 세계 평화를 실현한다는 원대하고 고상한 목표는 적어도 그때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 정복과 노예제, 전쟁을 이용했다. 금욕적인 철학자이자 강력한 황제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화를 원했지만,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이끄는 등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오늘날도 비슷한 상황이다.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사용자들을 온라인 콘텐츠에 중독으로 이끌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영아 사망률과 기아가 매우 감소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1세기 로마 시대 이후 사람의 기대 수명은 25세에서 75세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연장됐다. 그 사이 인류는 달위를 걸었다. 몇 가지 주요 질병을 퇴치했다. 하지만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 죄가 갑자기 사라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영아 사망률이 줄어든 자리 대신에 우리 사회는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우리 사회는 ‘죽음 운동’을 장려한다. 자살과 정신 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자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반영해야 했지만, 불



▲ 인공지능 로봇. 출처: Andrea De Santis on Unsplash

순종했다. 대신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선악의 판단을 우리에게 맡겼다.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트랜스휴머니즘의 경우, 우리는 선과 악, 최고와 최악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따라 우리 자신을 재구성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창세기 11장에서 온 땅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창 11:4)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단결했다. 그들은 기술(벽돌)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에 닿기를 원했다.

철학, 특히 고대 및 중세 철학에서 ‘결핍’은 그 유형에 필수적인 중요한 특징이 결여된 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었다.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신체 결단 환자도 여전히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학은 일반적으로 결핍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질병, 청력 상실, 골절, 배인 상처, 장기 기능 부전 및 기타 수많은 질병은 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의학이 자연적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을 향상하고자 할 때 의학은 선을 넘는다. 체외 수정, 낙태, 유전자 조작, 성전환 등 다른 분야에서도 생명윤리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트랜스휴머니즘과 맞닿아 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몸은 선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만 동시에 타락하고 저주받았다는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육체’는 우리 몸을 타락으로 이끄는 영적 실체이다(갈 5:19~21). 우리의 영, 혼, 육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우리’란 ‘우리의 몸’이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가 몸에 죄를 지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에도 영향을 미친다. 죄는 또한 우리 몸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긴다. 우리는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새 마음, 새 영혼, 새 동기, 새 정신, 새 육체를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뿐이다.

죽음과 육체의 연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트랜스휴머니즘의 목표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멸하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고전 15:26). 고린도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 바울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고전 15:14).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몸을 위한 씨를 뿌린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라고 말한다.

팍스 로마나나 세속적 트랜스휴머니즘에 맞서 새 몸과 새 마음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고 말한다.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은 죄악된 도시의 상징인 바빌론을 정복하고 용을 멸망시킬 것이다. 영적 전쟁이 종결되고(승리는 확실하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기뻐할 것이다. 또 다른 세상 이데올로기에 직면하여 우리는 희망을 갖고 외칠 수 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계 22:20~21)

우리는 인간의 발명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기초한 미래에 대한 강력하고 견고한 소망이 있기에 자신 있게 사랑과 은혜,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자.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고아들의 아버지를 찾아주는 조운환 대표 (사단법인 더올편)

• 1면에 이어

“윤환아, 너희 친할머니 유언이 뭐지 아니? 윤환이 불교를 잘 믿게 해라.” 33년 만에 만난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조 대표는 만약 자신이 고아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자랐다면 지금쯤 아마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계에서 무슨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고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다. “진짜 신이 있다면 만나주십시오. 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고아도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이버 신이라면 돈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겠지만, 진짜 신이라면 비천한 자도 만나주시겠지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고아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다고 고백했다.

- 놀라운 고백이네요.

“제가 살던 충남 부여 고아원은 인적이 드문 시골이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먼 길을 마다 않고 20리 되는 거리를 매주 걸어서 오시는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고아원에 함께 있던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일요일이면 친구들과 놀 수 있는데 할머니 전도사님이 오시면 예배를 드리니까요. 할머니가 하는 설교도 재미없지, 성경만 읽고 가지지, 반가운 손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오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최근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이 집에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고아원에서 그분의 장례식을 치를 일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전도사님 장례식이 고아원에서 열렸기에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복음 전하던 할머니 전도사님 때문에 하나님 만나

- 아,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군요.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할머니가 주님 품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목적이었구나. 내게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려고.’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된 이후,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전도사님 대신 오게 된 남자 전도사님이 하루는 “성경을 매일 읽을 사람이 있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이 고아원 아이들 중에 성경 읽을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큰 부담이 생기면서 제가 읽겠다고 했어요. 매일 한 장씩 빼먹지 말고 읽으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확실히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매일 읽었어요. 자다가 깜빡하고 성경 안 읽은 게 생각나면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추운 복도에서 읽고 들어가서 다시 잤어요. 지금까지도 매일 성경을 읽어요. 지금은 2장씩 읽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에 나오는 놀라운 이적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 그런 간증이 있군요. 어떤 일이었죠?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아원에서는 선배들의 폭행이 심해요. 동생들이 말을 잘 안듣으니 몽둥이로 다스리거든요. 선배가 때릴 때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맞아도 아프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운동을 잘하게 해달라고도 기도했어요. 족구를 하는데 진짜 공이 총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농구도 그렇고. 고아원에서는 잘 먹지 못해서 제 체격이 왜소했거든요. 산에 돌아다니면서 산딸기, 머루, 감, 칩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어느 날

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력고사 칠 때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 1독이 끝났어요. 아무래도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성경 읽기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부터 최대 위기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영어가 안 보이고 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공부 시간을 확 늘리고 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제한하시더군요. 처음으로 죽고 싶었어요. 피할 곳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성경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성경 읽기를 한두 달 쉬었는데 그사이 성적이 떨어졌어요. 성경을 다시 읽고 성적이 조금 회복되긴 했지만 특수반에서 계속 하위권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성경 읽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고, 지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공부해서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주시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만 잘하게 돼도 급제 교만해지는 저를 주님은 아셨던 것이죠.



지를 만났을 때, 제가 바라는 만큼 다 되진 않았지만 그때부터는님께서 함께하시니까 안전한 거죠.”

예전에는 고아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였다. 그러다 현재는 만 24세로 연장됐다. 보호종료가 된 조 대표는 고아원을 나오자마자 자신이 초라해졌다고 말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교회로 피했다. 교회는 마치 인큐베이터 같았다. 그곳에서 조 대표는 마음의 치료를 받으며 사회를 알아갔다. 그에게 교회가 전부였고 신학교, 신대원을 나와 교회 전도사가 됐다.

교회의 도움으로 마음의 치유와 신학공부

- 교회 사역은 어떠셨나요?

“3년 정도 사역하고 나니까 바다가 드러났어요. 제가 전도사인데도 청년들이 잘못하면 혼내는 것이 저의 방식이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구타했어요. 그곳은 회의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명령과 순종밖에 없죠. 전

들었어요. 그리고 부모를 찾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알아보던 중에 모범운전자 회장님의 도움으로 경찰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저의 기록을 찾아야 부모님을 추적할 수 있는데 제 본명도, 부모님 이름도, 주소도, 주민등록번호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죠. 주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제가 병역기피자로 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신체검사를 안받았거든요. 그래서 병무청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서의 도움으로 드디어 부모님을 찾게 됐어요. 그런데 또 반전은 있었죠. 어머니는 저를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저를 보고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두 달 넘게 경찰서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때 야곱처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만나게 해달라고 엄청 많이 기도했어요. 얼마 후 사무실로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무장님이 전화를 받으셨는데 직감적으로 저희 아버지인줄 아셨대요. 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제가 단체 대표인 것이 확인되고 나서야 안심이 되셨는지 그때 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어머니는 나중에 만났죠. 어머니는 제 눈을 잘 쳐다보지 못하시더군요. 미안하시다면서. 어머니를 만나고 제가 왜 버려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들었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박에 손을 대면서 힘든 삶을 사셨다. 조 대표의 어머니는 힘든 삶 때문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아버지의 핍박이 시작됐다. 도박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던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를 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조 대표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6개월간 입원을 하게 되자 외할머니는 조 대표 아버지가 실종됐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외할머니는 조 대표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도록 했다. 외할머니는 자신의 딸의 미래를 생각하고 딸에게 행동을 요구했다. 초신자였던 어머니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1984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 그가 버려졌다. 그의 한 살 위 누나도 비슷한 시기에 서울역에 버려졌다. 나중에 만난 어머니는 자녀들을 버린 후 40일 금식기도를 했노라고 전했다. 조 대표는 어머니를 용서한다고 했다.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 이어 조 대표는 어머니의 중보기도의 힘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온 것 같다고 고백했다.

[GN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 고아원 시절 원생들과 함께. 앞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가 조운환 대표이다. /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제공: 조운환

학교 체력장에서 제가 전교 2등을 했어요. 운동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응답해주셨어요.”

소년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경험

- 살아가는 순간순간 기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신 거군요.

“하나님을 믿게 되니 도둑질, 싸움도 끊게 됐어요. 고아원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많이 때렸어요. 훔치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 되는 더 이상 지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대신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가 있었는데 제가 뽑혀서 나가게 됐어요. 고아원 역사상 이런 일은 드물어요. ‘윤환이가 왜 갑자기 공부를 이렇게 잘하냐?’ 이야기들을 했지만, 저는 그때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됐어요. 공부를 잘하게 되니까 후원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고, 저를 키워 주겠다는 사람도 나타나더군요. 그러면서 공부의 힘을 알게 됐어요.”

- 공부의 힘이 그런 거군요. 이후



만약 하나님께서 중학교 때 지혜와 지식을 제한하지 않으셔서 제가 승승장구했다면, 아마 저는 교만해서 작은 실패에도 죽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뿌리가 없는 무성한 나무였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저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나요?

“만약에 하나님이 재정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부모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손을 빌릴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재정을 주지 않으시면 갈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진짜 빈털터리였고,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책임지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실감나요.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되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버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엄마의 손을 놓쳤을 때가 삶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때부터 평생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아버

지라도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데 저는 혼내기만 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 사역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이미 결혼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뭐 먹고 살래?’ 물어보는데 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었어요. 야간에 대리 기사를 했었는데, 아내가 돈을 적게 벌어도 괜찮으니 차라리 택시 기사를 하길 원했어요. 그렇게 택시 기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택시 운전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사회와 정치, 외교, 경제 등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감사한 것은 제가 모범운전자였기 때문에 경찰서와 관계가 있었고, 경찰들 덕분에 부모님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 부모님을 찾는 과정도 궁금하네요.

“한마디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부모님을 찾고 싶어 도움을 구할 곳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고아 관련 단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먼저는 내 부모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에 고아권익연대를 만



선교 통신

“오늘의 교도관이 내일의 죄수가 될 수 있다”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저희 가정이 갑작스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국으로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남편 그렉 선교사가 플로리다 신학교를 총장으로 섬기게 되었지만, 그마저도 코로나로 학생 수가 줄고 학교가 이사 가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기가 막힌 상황들 속에서 정말 낙심되고 힘이 많이 빠졌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음의 사역을 위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렉 선교사를 지난해 8월, 코오시빅(CoreCivic) 교도소의 교정관으로 부르셨습니다. 코오시빅 교도소는 1983년 1월 28일 설립돼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국 정부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사립교도소입니다. 이곳에는 18세~25세까지 아주 젊은 청년 재소자들이 800명가량 있습니다. 마약 판매와 여러 범죄들로 교도소에 들어온 이들은 모두 절망 속에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가지고 있는 이곳이 정말 세상의 땅 끝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섬겨왔던 어떤 선교지보다도 더 힘든 곳이 감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쌍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안타까우면서도 슬픈 곳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 간힌 순간에도, 또 안에서 계속 더 죄 지을 생각만 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서서 주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3월에는 건강한 청년 재소자가 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죽은 청년의 심장 아래로 밴드가 붙여 있어서 보니 연필심처럼 생긴 조그만 구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가려 놓았는지 모르지만, 그 작은 구멍이 굵고 썩어서 온몸에 독이 올라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재소자들끼리 장난치다가, 아니면 싸우다가 찌른 것인데 벌을 받을까 봐 숨긴 것이었습니다. 정말 간단한 항생제 연고 하나면 살 수 있었던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그렉 선교사가 무척 안타까워하며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숨겨버리는 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우리가 사소한 죄라도 타협하거나 가리지 않고 곧바로 의로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고침 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



▲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출처: prisonfellowship.org 캡처

도합니다. 감옥에서 교도관들은 죄수들의 죄목이 무엇인지,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자세히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친해지면 재소자들에게 교도관들이 이용당하여 마약이나 불법 물품을 밀반입하도록 시키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4월에는 이곳에서 한 교도관이 담배 7개피를 밀반입하다가 들켜서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사무실 입구에는 ‘오늘의 교도관이 내일의 죄수가 될 수 있다.’라는 액자가 있고, 그 옆에는 그동안 감옥으로 가게 된 교도관의 사진

들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렉 선교사를 ‘미스터 에이스(Mr. Ace)’라 부르고 ‘미스터 스마일(Mr. Smile)’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늘 인상 쓰고 험한 소리와 욕이 오가는 곳에서 그렉 선교사는 늘 재소자들에게 친절하게 교육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챙겨주며 열심을 다해 섬겼기 때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렉 선교사가 감옥의 무섭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어 주었다며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기도 부탁을 한다고 합니다. 한 재소자는 당신만이 나에게 미

소 지어주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재소자는 남편에게 성경책을 구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잘 견디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감옥에서 일어나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GNPNEWS]

미국=그렉·박미리 선교사

복음의 능력

주님이 계시니 소망이 있다

이 시대의 악행에 관한 모든 통계들을 내게 달라. 가능하다면,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이름을 말해 달라. 가능하다면, 파괴된 가정들과 정체 상태에 빠진 교회들의 명단을 달라. 가능하다면,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를 위해 개발한 비밀 병기들의 목록을 달라. 이 모든 것을 당신이 내게 줄지라도 나는 떨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을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요일 4:4) 이 말씀을 기억하라.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은 행위를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에서 깨끗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승리를 향해 전진하자! 이렇게 할 때 지옥의 문(門)들은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GNPNEWS]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 (레오나드 레이븐힐)’에서 발췌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국가인권위,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지나친 편향성 보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일반 국민이나 한반도에서 인권사각 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이나 탈북민들의 인권보다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더 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권위는 교내에 성소수자 소모임의 홍보물 게시를 보류한 대학에 대해 차별 행위라며 해당 대학 총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인식 개선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 한 대학생은 대학 측이 성소수자 소모임 회원을 모집하는 홍보물 게시 건에 대해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라 회의를 필요한 사항”이라며 해당 홍보물 게시를 보류했다면서, 이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성소수자임을 이유로 게시를 불허한 것이 아니라 교내 ‘학생활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의 편집, 제작 지도를 받은 학생단체만 교



▲ 국가인권위원회. © 복음기도신문

내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해당 소모임은 게시물 규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구비하지 않은 채 동아리 홍보물 게시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은 “소모임인데도 불구하고 동아리로 전환될 때는 동아리연합회의 허가가 필요할 텐데 그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하는 학생들 간 대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성소수자 모임에 대해 학부모의 민원이 예상돼 게시를 허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북한 주민이나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이 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거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판문점에서 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로 북측에 인계해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인권 전문가들은 ‘고문 방지에 관한 협약’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을 고

려할 때 고문을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하며, 사형제도가 있는 곳으로 송환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들 강제 북송된 탈북민에 대한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당시 인권위원장은 2018년 취임한 최영해 전 서울시 인권위원장이었다. 현재 인권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4일 임명된 송두환 전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가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 주최의 북한인권재단 설립 정책 토론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주민 인권 개선 결의안에 찬성하면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국민을 속여왔다.”며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해 북한 주민 인권을 논의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NPNEWS]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3)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 ‘오직 십자가!’

사회적으로나 문명적으로 21세기를 맞이한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이 세상을 상대하고 구원해야 되는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의 급격한 변화를 외면할 수 없다. 하늘에 속한 백성인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자들이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꼭 잡아먹는 게 본능인 이리 앞에 먹잇감인 양을 두는 것과 같다고 하신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천국의 원리와 가치를 따르라는 말은 잡아 먹히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하지만 이 세상은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사명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말한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는 예측 불가능할 상황이다. 융복합 시대인 4차

산업혁명의 놀라운 변화 때문이다. 하지만 혼합된 세상에서 쉬이거나 바뀔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절대 진리가 있다. 폭풍의 소용돌이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세상과 결코 섞일 수도, 바뀔 수도, 소멸될 수도 없는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이다.

하늘과 땅에 유일한 살아계신 참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죄인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으나 성경이 말한 대로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성경이 증언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는 창조의 주님이시며 지금도 이 역사를 통치하시며, 장차 심판하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 안에 그 신성의 충만함을 능력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 안에 다 계시

해 주셨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를 담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이다. 그것만이 우리가 택할 유일한 진리이다.

다원주의든 상대주의든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은 서로의 상대적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절대자’, ‘오직’, ‘십자가’라는 단어를 싫어한다.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 대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하나되자고 한다. 그러나 성경이 선언한 영원불변의 절대 진리는 바로 이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천사들이라도 또 혹 우리 중에 사도 중이라도 이 복음 내가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의 저주를 받을지어다”(갈 1:7~9 요약). (2018년 8월)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일러스트=이예원

헤브론선교대학교 2023 학생모집

01 복음성경학교 | 신약학기

복음성경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적 관점으로 읽고 공부하여 어떠한 세상적 가치와 기준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모집대상 :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복음학교 수료자.

02 영어기초학교 English Fundamental School

영어기초학교는 열방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쉽게 영어에 접근하도록 기초를 가르쳐 열방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는 학교입니다.

모집대상 : 선교사로 준비되기 위해 영어기초가 필요한 그리스도인, 복음학교 수료자.

03 공통 해당사항

학사기간 : 15주 (9월 초 개학) 등하교 : 월 저녁~금 점심
모집기간 : 7.1~7.31 공동생활에 결격사유 없는 분
등록금 : 250만원 문의전화 : 010-2772-4641

YouTube [헤브론선교대학교] 검색



복음기도총서2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반응으로



eBook도 있습니다

김용의 저음
값 9,000원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우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남아 있지 않을 때, 죽음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때가 있다.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그는 비상한 각오를 한다. 보장된 미래를 기꺼이 포기하고 거칠고 피 말리는 매일의 초조한 싸움 가운데로 뛰어든다. 하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그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홀로 사랑하는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다 폐허가 된 조국으로 간다.

복음과기도미디어



구입문의

야진과보아스 Jakin and Boaz
032-887-0235 www.jakinboaz.co.kr



말씀 안 읽던 모태신앙, 이제 말씀 따라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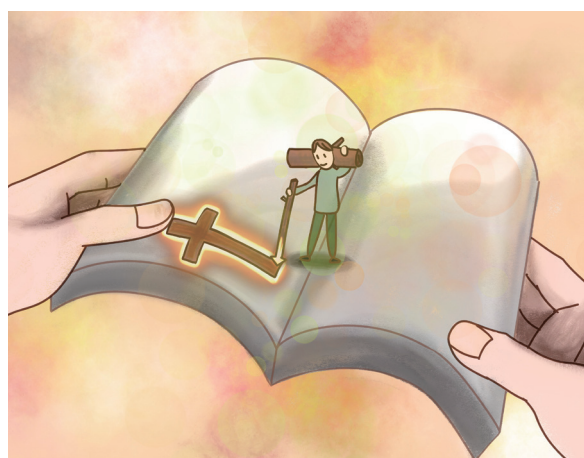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모태신앙이었지만, 나이 마흔이 될 때까지 말씀을 별로 읽어본 적이 없었다. 다음세대 신앙훈련인 뉴스쿨을 섬기면서 평생 읽었던 말씀보다 더 많은 말씀을 읽으며, 꿀같이 달콤한 시간을 보냈다.

훈련의 마지막 과정으로 아웃리치를 떠나게 됐다. 팀 약속의 말씀은 “나를 보 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 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 하시 는 일을 행하므로 나 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 8:29)였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 뉘주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우리를 빚어가는 주님

비가 많이 내려 전도하려 나가지 못해 무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었지만 섬겨주시는 전도사님은 각자의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잘라 와야

하는데 비가 내린 후라 아이들이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어서 전도사님과 나 둘이서만 가게 되었다. 비에 젖은 풀숲과 가시나무들이 많아서 난 전도사님만 의지하고 갔다. 나는 전도사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전도사님은 숲에서 기울어진 통나무를 보시고 잘라서 가



일러스트=고은선

를 잘라와서 십자가를 만들어 주셨다. 통나무를 어깨에 올리고 나와 보니 차에 실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가 들고 숙소까지 걸어갔다. 그런데 마음에 애 통함이 밀려왔다. 예수님께서 서 끌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를 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눈앞에 번쩍 보여 주셨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 전도사님께서 위험한 길도 안전하게 안내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나를 말씀에 맡긴다면 주님이 천

성들이 반복적으로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됐다. 또한 그동안 말씀과 상관없이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동안 자녀들에게도 내 기준으로 아니라고 생각되면 바로 가로막았다. 그러나 말씀 앞에서 보니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었다. 그래서 자녀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길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보살피 주는 것임을 알게 됐다. 그 말씀 역할을 내 기준이 아닌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이기에 내가 잔소리할 필요도 없고 매를 들어 때릴 이유도 없었다.

평생 못 읽었던 말씀을 이제 날마다 읽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만 따라가기로 결단한다. [GNPNEWS]

김요셉



워크숍
지상중계

이 코너는 GPM(복음과기도미디어)이 운영하는 복음의 소리 316 전화(1670-3160)가 진행한 '신앙 상담 시에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주제로 열린 상담자 세미나(강사 권서영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편집자>

무모하거나 우울해지는 조울증

+ 신앙 상담 시 도움이 되는 정신의학 (16)

흔히 알고 있는 조울증(躁鬱症)은 양극성 기분장애로, 어떤 시기에는 조증(조급하게 구는 성질)이 생기고 어떤 시기에는 우울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조증일 경우 들뜬 기분이 지속되며 의욕이 지나치게 고조되어 피곤함이 없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증이 심해지면 점차 말이 과도하게 많아지고 상대방 말을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만 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감이 과도하게 넘쳐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이때 자신의 능력을 과대하게 믿는 과대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부동산 투기나 과도한 쇼핑, 새로운 사업을 갑자기 진행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한 20대 남성의 사례다. 대학생 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후 우울감과 무기력감, 불면, 자살 생각 등의 우울 증상이 몇 달간 지속되다가 호전된 경향이 있다. 언젠가부터 말이 많아지고 잠이 줄어들고 활동량이 늘어났다. 10곳이 넘는 교회에 자기가 수천만 원씩 헌금을 하겠다고 약정을 했다. 교회는 갑자기 큰 금액을 헌금하겠다는 청년을 믿음이 좋은 청년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신은 부동산에 투자하면 쉽게 돈을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만나 는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또한 한국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이 복음화 운동에 대형교회 유명 목사님들이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르는 수십 명의 목사님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메일의 내용은 문장에 논리적 비약이 많고 황설수설하여 잘 이해하기 어렵다. 답변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화를 내고 목회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형적인 양극성 기분장애의 조증 상태의 사례다. <계속> [GNPNEWS]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비혼·비출산주의 여성... ‘사상 개조 대상’으로 분류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북한 당 지도부가 최근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

성들을 ‘사상 개조 대상’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데일리NK에 따르면, 당국은 여성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혼주의와 비출산주의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생활양식과 동등한 선에 있는 비사회주의적 인식이라면서 여성들의 사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강

연과 교양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미혼 여성들은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개인의 사상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북한은 전국의 모든 탁

아소와 유치원에 국가 부담으로 유제품과 영양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당의 육아 정책 실천이자 가장 큰 성과로 선전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이보다 더 실리성 있는 대책

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열악한 생활 조건에서 경제활동과 육아, 가사까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북한 여성들의 냉철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이를 사상적으로 풀어보겠다는 당국의 발상은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GNPNEWS]

北, 탈북 시도 발생... 양강도 출입 및 이동 차단



▲ 줄지어 서 있는 북한 여성들. 출처: Thomas Evans on Unsplash

북한 양강도 김형직군에서 탈북 시도 사건이 발생, 양강도 출입은 물론 이동도 임시 차단됐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김형직군에서 지난달 22일 남녀 2명이 새벽 2시경 탈북을 시도하다가 국경경비대 군인들에게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 20일경 김형직군에 사는 지인의 집에

방문해 국경 지역을 살핀 후 탈북 도중 단속에 나선 국경경비대 군인들을 뿌리치고 달아나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형직군의 국경경비대 군관들은 지난 23일부터 경계 근무 강화로 한동안 집에 들어가 지 못했다. 당일 근무한 군인들은 도주한 이들을 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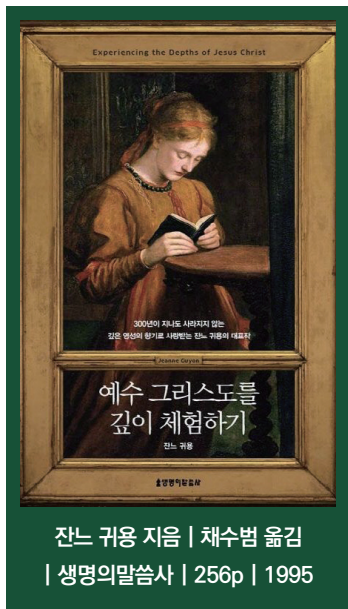
지 못하면 무거운 처벌을 면치 못한다는 두려움에 이들을 찾는데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날부터 도·시·군 간 이동이 차단되면서 다른 지역에 나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들어왔던 주민들이 오도 못하는 처지가 돼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탈북

사건 보고를 받은 도에서는 주민들이 자기 사는 지역에서 일절 움직이지 못하게 이동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한편, 국경 지역인 혜산시에서는 탈북을 시도하다 발각돼 도망친 이들이 붙잡히게 되면 총살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NPNEWS]

뷰즈 인 북스
Views in Books

잔느 귀용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나의 변화가 부분적임을 깨닫는 순간, 진정한 변화는 시작된다



한 사람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만남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그것은 만남의 깊이에 따라 달라진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의 영원무궁하심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변화는 완전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를 만났으나 변화가 일시적이든지, 부분적인 변화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더 깊은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 깊은 앎과 완전한 변화, 영원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

저자인 잔느 귀용 부인은 1648년 프랑스의 루이 14세 때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녀의 일생은 재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에 태어난 그녀는 타락한 교회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놀랍게도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 그렇게 정금같이

단련된 그녀의 신앙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실제적인 교훈과 도전을 던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경건한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왜곡된 생각 대신 한 걸음씩 쉽고 단순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끈다. '기도와 경건'에 대하여 바람직하며 즐겁고 유익하고 쉬운 길을 비춘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하여 수많은 핑계를 대며 마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처럼 말한다. 또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어긋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죄를 짓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어렵고 질긴 싸움인 죄를 끊어내는 일은 거룩함과 대치된 죄와의 단절에서 시작된다. 그 일은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여 돌이키고 주님께 굴복하

면 된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빛을 더욱 강력하게 비추어 주신다. 그 시작과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이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성경으로 기도하기, 주님을 바라보기,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기다리기'이다.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그치고 마음 중심에서 드러지는 존재와 생명을 다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길은 저자의 말처럼 쉽고 단순하지 않다. 그렇지만 산란하고 흩어지는 생각을 주님께로 되돌리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위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자기 포기'에 있다. 과거에 대해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된다. 또 현재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주님께 바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만족하면 된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지속적인 관

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깊은 교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

이 책은 나의 내면에서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교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과 실제적으로 부딪혀 오는 현실의 갈등과 고민 속에서 지속적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했다.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난다. 나의 원함, 나의 결론, 내가 원하는 응답을 위해 간구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제나 내 영혼을 돌이켜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응답이요, 나의 간구할 제목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신다. 그렇게 주님만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 깊이 주님을 만나고 나아가길 원한다.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온 땅에 충만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일하소서! [GNPNEWS]

박혜인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이안이의 모든 생애가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지난해말 본지에 소개된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 조치연 집사와 정하얀 집사의 딸 이안(3) 양이 투병 7개월만에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겼다. 그동안 블로그와 기독교 방송 등을 통한 중보기도 요청 이후,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으나 주님은 이안 양을 더 이상 아픔이 없는 주님 품으로 지난달 27일 이끄셨다. 이안 양은 지난해 11월 말 갑작스럽게 고열과 발작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최근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날 밤 심정지 상태로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 심폐소생을 시도했으나 결국 깨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블로그를 통해 이안 양 소식을 전해온 정하얀 집사는 지난 1일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 이안이가 이제 정말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주님은 사랑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이안이에게 흘러 보내주시어서 우리 이안이 정말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이 땅 살다가 해 주셨어요. 주님께 감사해요."라고 고백했다.

다음은 이안 양 엄마가 기록한 '조이안(2021.1.17.~2023.6.27) 천국여행 마지막 소식'을 요약 소개

한다. 이안이는 27일에 숨을 거두었지만 집에서 가까운 장례식장에 빈소가 없어 기다리다가 28일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빈소를 차릴 수 있었어요. 지나고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3일간 이안이 장례를 치르며 저는 또 한 번 천국을 보았어요. 엄마를 따라 조문 온 7살짜리 주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이안이를 만난 적은 없지만 오랜 기간 이안이 기도를 같이 해준 아이예요. 주원이 엄마가 주원에게 이안이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전하니 부럽다고 말하며 자기도 이안이랑 같이 가고 싶다고 했대요. 그날 주원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이안이 영정 사진을 보고 인사하던 모습을 잊지 못해요. '아! 진짜 천국 소망이 저런 거지. 순수한 아이들의 눈에는 천국에 간 이안이가 저렇게 부러운 거구나. 진짜 멋지다.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이안이 진짜 좋은데 갔네. 좋은 곳으로 가줘서 고맙다 정말.'

이안이를 영안실에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믿음 흔들리는 거 아니지? 그렇지?" 하고 신랑에게 물었어요. 신랑은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한참 뒤에 "그래도 따져 물어보고 싶은 건 있



▲ 故 조이안 양. © 복음기도신문

어."라고 대답했어요. 장례식 둘째 날 잠시 단물이 빈소 앞에 앉아있던 시간에 신랑이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에 하나님께 따져 봐야겠다고 했던 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이안이 사역지가, 이안이 사명이 바로 나왔다고. 나 살려고 이안이 보내신 거라고... 그래서 이안이는 자기 사명 다 마치고 간 거라고..." 울먹이며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저에게 전하는 신랑의 등을 어루만지며 "우리 꼭 천국 가자."고 대답했어요. 북한선교를 위해 드리겠다고 서원해서 받은 줄로만 알았던 이안이는 사실 저와 제 신랑을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였어요. 이안이 덕분에 천국이 제게 너무

가깝고 그리워졌어요. 원래도 가고 싶은 천국이었지만 이제는 천국 소망이 제 인생의 전부가 돼버릴 만큼이요.

남골담으로 향하는 길에 잠시 서서 이안이가 담긴 유골함을 마지막으로 꼭 끌어안아 보았어요. 이안아 사랑해 정말로. 이렇게 저희는 모든 장례 절차를 마쳤어요.

7개월의 병원생활, 7개월이 된 언약이(에스터). 이안이가 아니었다면 둘째도 갖지 않았을 우리 부부입니다. 이안이가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갔는지, 이안이의 모든 생애가 우리에게 축복이었어요. [GN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6. 15 ~ 7. 4 (가나다 순)

개인

김경선 김광희 김득기 김선희 김애심 김정희 김형숙 김혜신 박경희 박성규 안민자 안수경 오세주 우 석 원형숙 유영권 이노아 이삼연 이영선 이영옥 이장원 이재인 이종훈 이주선 이진희 정금자 정용영 정요한 정유석 조명숙 조형광 진미자 차인순 최승리 최정옥 황일문 기타

교회 및 단체

목자교회 복음가득한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새순교회 쉼 시흥교회 안양그루터기교회 열매교회 오예교회 주나임교회 주만교회 참종양터라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재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